

## “테러 지향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2007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6자회담은 지난 3년동안 많은 협상을 벌여오던 중 금년 2월 13일을 기해서 북미간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드디어 이루었으며 합의서에 거론된 여러가지 미묘한 안건들을 하나 하나 해결함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2.13 합의는 미국측의 유연한 협상 태도와 이북측의 자긍심에 바탕을 둔 협상 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이북의 핵무기 보유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항상 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용이었다. 이것을 드디어 인정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대미 국제관계의 개선을 통해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북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미간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단계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단계인 금수조치 철회, 휴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과 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120만 재미동포들은 부시 행정부가 하루 바빠 이북을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여 민족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방해가 아니라 협조하는 미국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와 가까운 선린우방으로 생각하는 일본이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이러한 평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즉 이북을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만일 미국이 이북을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면 미일간의 동맹에 금이 가게 된다는 등 위협하는 언행을 감행하고 미국 의회에 호소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미동포들은 놀라움과 분개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일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조치를 위해 먼저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에 대해 일본이 무엇때문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없이 이북을 테러 지원 국가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일본 시민 납치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120만 재미동포는 하나같이 일본이 과거 역사에서 조선 민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얼마나 많은 비인륜적인 일을 자행하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우선 북한에 의한 일본 시민 납치문제를 살펴보자.

1970년대에 일본 당국은 16명의 시민이 행방 불명이 되었으며 이들이 이북의 정보원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조일정상 회담 때 고이즈미는 이를 제기했고, 당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도 인정하였으며 13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하였고 5명은 생존하여 북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약속과 동시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얼마 후 생존자 5명은 일본으로 귀환 하였으며 그 가족들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북일 양국 대표단이 조사를 하였으나 결국 북이 밝힌 13명 이외의 피납자는 더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북은 계속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 여러번 사과를 하였다.

일부 재미동포들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볼때 이북 정부를 공공연히 그리고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북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문제를 순순히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일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납치, 인권 침해, 침략, 공공연한 학살 사건 등의 거의가 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 의해 자행된 추악하고도 악독한 범죄였으며, 일본인 납치 문제보다 더 엄청나고도 참혹한 사실에 단 한번도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 민족에 대해 범한 참혹사를 살펴보자.

## 일본이 우리 민족에 대해 범한 참혹한 인권 범죄의 역사

-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한반도를 침략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30만 대군을 한반도에 보내 순식간에 점령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무차별 살육전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고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등 많은 도시를 초토화하였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유없는 참혹한 침략로 인해 그 후 조선인들의 마음 속에 지울수 없는 반일 감정을 심어주었다. 결국 이들은 수년 만에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로 보급로가 막혀 물러가고 말았다.
- 그러나 5년 후 1597년 정유재란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일본은 다시 방대한 정복군을 보내 한반도를 침략하였으며 또다시 우리의 강토를 초토화시켰으나 이번에도 이순신 장군의 지혜스런 전략으로 일본 정복군을 패퇴시켰다. 일본은 퇴각하면서 민간인 7,000여명을 강제 납치해갔다. 무참히 끌려간 민간인들은 일본에서 농경 노예, 성 노예 그리고 무보수의 머슴살이를 강요당했으며 그 일부는 도공으로서 일본의 도예공업을 일구는데 공을 세웠으며 오늘날까지 그 후예들이 살고 있다. 수 년후 한국 조정은 이들 피납자들의 비참한 생애에 대해 깊은 관심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많은 문화재를 갖다주는 대가로 이들을 구해내려고 했으나 일본인들의 간계에 의해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약 1200명만을 구해오는데 그쳤다.
- 1919년 3월 1일은 우리 조선 사람은 그누구도 잊을 수 없는 기미년 독립운동일이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조선인들은 독립선언문을 채택 선포하였다. 그리고 무저항 평화적 시위를 벌려 일본인의 혹독한 식민지 정책을 반대해 들고 일어났다. 무저항 평화적 시위는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참혹한 탄압으로 인해 결국 7,500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 1923년 9월 1일 일본 수도 동경을 포함한 관동지대에 유례없는 대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에 대비하여 재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일본은 심한 화재와 건물 붕괴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조선인에게 전가시켰다. 즉 “조선인이 방화하였다.” “약탈했다.”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지진 피해의 원인을 재일동포들의 탓으로 돌렸다. 일본 당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총 6,000여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다. 조선인들 또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의 사상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본은 도와주기는 커녕 도리어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조선인은 억울하게 총에 맞아 죽고, 매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었으며 유아, 부녀자를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용제도”를 만들어 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 탄광, 조선소, 수력발전소에 보내어 강제노동을 시켰다. 종전이 되자 이들 강제 노무자들을 그들의 조국, 조선으로 귀향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아왔으나 대부분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일본 땅에 주저 앉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이 심한 일본사회에서 인종적, 경제적, 교육적,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아왔다. 현재 재일교포들인 이들은 그간의 차별에 못 견디어 일부 귀화하였으며 한때 100 만이 넘는 이들은 오늘날에 와서 약 45 만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견딜수 없는 여러 가지 수모와 압박을 가하며, 경제적 압력, 인종 차별, 교육적 차별, 취업상에서의 차별등을 부끄럼 없이 공공연히 자행 하고있다.
- 또 특기할 만한 사건은 제 2 차 전쟁당시 조선인 36,000 여명을 당시 일본영토였던 사할린에 강제 이주시켜 그곳 탄광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종전이 되어 소련군이 밀물같이 쳐들어오자 일본은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광부들을 모두 버리고 자국 국민들만 데리고 급히 배로 빠져나오고만 사건이다. 이후 조선인들은 하는 수 없이 사할린에서 지금까지 소련 국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수가 40,000 명이 넘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족과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최근 크게 재론된 중군위안부의 피눈물 나는 삶이다. 태평양 전쟁 중 총 20 만여명의 조선인, 중국인, 필리핀인의 젊은 소녀들을 일본 정부가 토끼사냥 하듯이 잡아다 자기네 군인들을 위해 강제 성 노예로 쓰다가 종전 후 현지에 모두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 중 일부 한국으로 귀국한 생존자 할머니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원통함과 분한 마음을 달랠길 없이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비참하게 사망하였다. 그러나 귀국하지 못한 조선인 여성들의 영혼은 눈바람 몰아치는 만주벌판에서, 찌는듯 더운 남양의 정글에서 일본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져야할 위안부 문제를 뻔뻔스럽게도 그 여성들이 돈 벌이를 위해 일선에 갔지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그간 일본의 무분별한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에 대한 슬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인권유린 등 무자비한 만행에 대해 일본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후 손에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한다. 일본은 그간의 조선 사람들에게 행한 반 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만행은 역사가 증명하는 확고한 사실이다. 이와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테러 행위와 같은 것이며 일본이 바로 테러국가와 같은 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역사적 만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도리어 일본이 13 명의 납치자 문제를 들어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로 전진하는 길을 방해 하는데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는 재미동포들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북미관의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무례한 방해를 즉각 중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역사적 만행을 반성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20 만의 미국 시민으로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정부에게 그리고 동포로서 미국시민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평화 정책 방향을 흐트러짐 없이 확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

2007년 12월 22일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www.kancc.org](http://www.kancc.org)

[www.koreapeacenetwork.info](http://www.koreapeacenetwork.info)

**동포독자 여러분!**

이 호소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 막으려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저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옆에 영문으로 된 성명서를 백악관, 미 국무성,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KANCC)